

트럼프, ‘이민자 급증세’ 살럿 단속...이틀간 130명 체포

민주당 주지사·시장 강력 반발...“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잡아갔다”

트럼프, ‘살럿 범죄 통계불능’ 쟁점화...“급습은 중간선거용” 분석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살럿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져 이틀 만에 130명 이상이 체포됐다.

살럿은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불안’을 들어 단속에 눈독을 들였던 지역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경순찰대는 지난 15일부터 살럿에서 ‘살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시작했다.

롭 브리슬리 관세국경보호청(CBP) 대변인은 15-16일 이틀에 걸쳐 살럿에서 체포된 사람이 13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체포돼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때까지 법 집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 살럿은 국경순찰대의 작전 강화로 불안감에 휩싸이며 크게 동요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비라일스 살럿 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단속 요원들을 향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살럿 시민 모두의 권리와 헌법적 보호

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조쉬 스테인 주지사도 단속 작전을 강력히 비판한 연설에서 “우리는 군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표식도 없는 차를 운전하며 피부색을 근거로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고,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며 주차장과 인도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아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성토했다.

단속이 시작되자 지역 내 일부 남미계 업장들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마스크를 쓴 요원이 픽업트럭 창문을 부수고 한 남자를 끌어내는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이 빠르게 퍼졌고, 항의 시위도 잇따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살럿 급습 작전은 불법 체류자 체포 후 구금 시간을 최대 48시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시 정부가 1천400건이나 거부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살럿 단속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 방송에 따르면 살럿의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선을 이민 문제, 민주당 비판으로 돌리



17일(현지시간) 연방 요원들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럿에서 불법 이민자를 수색하며 주유소를 지나가고 있다. 연방 요원들은 살럿 지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 강화 조치인 ‘살럿의 거미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게 하려고 살럿을 단속했다고 보고 있다.

딤플 아지메라 살럿 시의원은 “이 행정부는 정치적 점수를 따기 위해 반이민적 수사를 내세웠다”며 “2026년 중요한 상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점수를 따고 공포를 이용해 우리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민주당이 운영하는 살

럿에서 체포 전력이 많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한 남성이 열차에서 우크라이나인 여성 난민을 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정치 쟁점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살인사건을 ‘통제 불능 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이민자·범죄자 단속을 위해 민주당 도시에 군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포석을 깔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살럿이 현재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살럿은 금융, 소매, 제조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성장세가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연합뉴스

런던에 ‘브리짓 존스’ 동상

젤위거 “실제 나보다 훨씬 귀엽네”

영국 런던의 유명 광장에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주인공 러네이 젤위거 동상이 세워졌다.

영화에서 브리짓 존스 역할을 맡은 배우 젤위거는 17일(현지시간) 런던 레스터 광장에서 열린 제막식에 참석해 이 동상을 가리켜 “사랑스럽다”며 “나보다 훨씬 귀엽다”고 말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지난 2001년 처음 스크린에 오른 뒤 올해 상반기 네 번째 작품까지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특히 여성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젤위거는 “연약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주인공의 인기 비결이라며 “우리는 브리짓에게서, 그의 고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리짓 존스라는 캐릭터가 “불완전 하더라도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것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개봉한 4편이 시리즈 마지막 작품으



러네이 젤위거가 17일(현지시간) 런던 레스터 스퀘어에서 열린 브리짓 존스 동상 제막식에서 사진작가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로 알려졌지만, 원작 소설가인 헬렌 필딩은 제막식에서 “결코 아니라고 말해선 안 된다”며 후속작이 나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BBC는 전했다. /연합뉴스

中, 日 교류행사 취소 잇따라...‘여행 자제령’ 가시화

기업 단체여행·유학생 답사도 취소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국 측의 일본 방문 교류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는 지난 15일 우호 도시인 일본 아이치현 한 다시에 애초 18일로 예정한 방문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통고했다.

다카이치 시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 하루 뒤에 연기 통고가 이메일로 이뤄졌다.

쉬저우시는 1993년 한다시와 우호 도시 협력을 맺고 교류를 이어왔다.

이시카와현 노노이치시도 전날 예정됐던 중국선전초등학교 교육우호방문단의 일본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주오사가 중국 총영사관은 오는 21일 히로시마 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8회 서일본 지구 일중 우호 교류 대회’ 중지를 통보했다고 산케이신문

이 같은 날 일본 측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영사관을 이끄는 쉼젠(薛劍) 총영사는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그는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위협성 글도 올렸다가 지웠다.

일본 여행업계에도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인 여행객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여행사 RCC 측은 이달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시찰 등 기업 단체여행 일정 약 30건이 중지됐으며 다음 해 1-2월로 예정한 유학생 사전 답사 9개 팀 일정도 취소됐다고 전했다.

중국인 일본에 대해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유학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사이의 사립대에서는 12월부터 1-2주간 단위로 운용할 단기 유학 프로그램

참가 예정이던 중국인 학생들의 취소 연락이 있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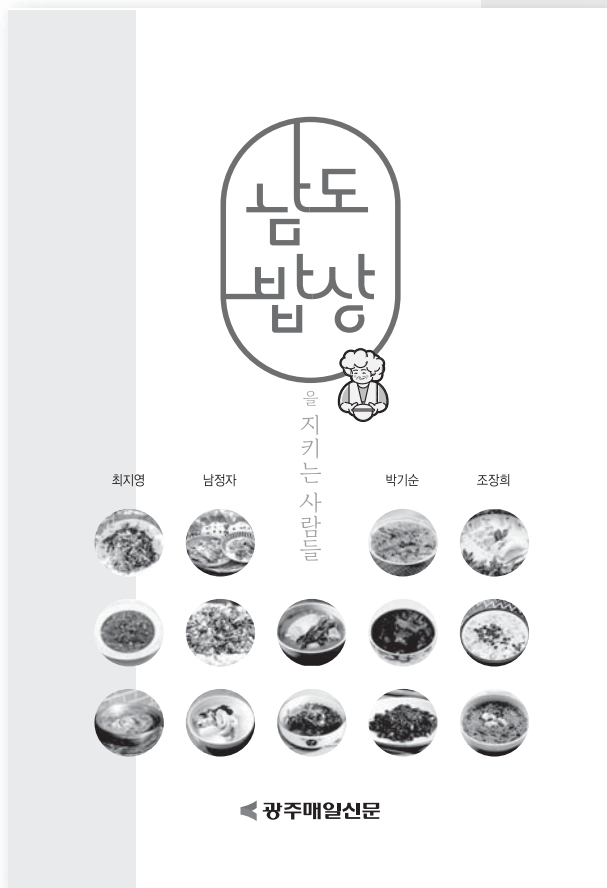
LA 일대 나홀간 폭우...산사태 위험 커져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나홀여간 폭우가 내려 복수의 인명피해를 냈다.

17일(현지시간) 미 기상청(NW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지난 5일간 LA 다운타운(DTLA) 지역 강수량이 282인치(71.6mm)를 기록했다.

이는 1985년 11월 기록된 종전 최고치 243인치(61.7mm)를 넘어 역대 11월 최대 강수량 기록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미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화요일인 18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뇌우를 일으키는 대기 상태가 잔류해 일부 지역에 산사태나 토석류가 발생할 위험이크다고 기상청은 경고했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